

“이 가을에는 이 한권의 책과 함께”

제37회 독서주간 행사 성료...국민독서문화진흥회 출범도



제37회 독서주간을 맞아 전국의 각급 도서관에서 다양한 관련행사가 치러졌다. 사진은 정독도서관의 관외대출 우수이용자 시상식.

한국도서관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9월24일부터 30일까지를 제37회 독서주간으로 정하고 ‘독서를 생활화하자’는 주제아래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에 주최측은 각 도서관별로 독서강연회 및 좌담회, 어린이 독서학교, 도서전, 독서관련 영화상영과 명목감상회, 그리고 시낭송회와 독서캠페인 등을 열었는데, 서점들도 독서주간 특설코너를 설치하는 한편 도서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도서관들은 모범이

용자 표창과 작가와의 대화, 글짓기 대회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했다.

독서주간과 때맞춰 최근 문화부 산하단체로 정식 등록한 국민독서문화진흥회(회장 김수남)는 26일 오후1시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책사랑 편지 띄우기’ ‘우수도서 추천과 독서토론회’ 등 책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회 책벌레들의 잔치 및 어린이 독서왕 뽑기대회’를 국민학교생 3백명을

대상으로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의 협조로 실시했다. 서울시립도서관 20곳을 비롯해 전국 국공립도서관의 열람실이 무료로 개방된 이번 독서주간이 끝나는 다음주인 10월2일부터 8일까지는 출판문화협회의 주최로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7백여 출판사가 참여하는 ‘91 서울도서전’도 열린다.

러시아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러시아문학회(회장 박형규)가 91년도 연차학술대회로 ‘도스토

예프스키 사후 1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했다.

정기총회를 겸해 치러진 이번 학술대회에는 소련과학아카데미의 꾸즈네프 박사와 김래호 교수(고리끼세계문학연구소) 등 소련학자와 국내학자들이 참석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꾸즈네프 박사는 ‘소련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평가의 변천’을, 박형규교수(고려대)는 ‘한국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과 문제점’을 발표했으며,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김래호, 고리끼세계문학연구소 교수),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의 배경연구’(김규진, 외국어대),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형상과 역할’(문석우, 조선

대),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언어학적 고찰’(전명선, 중앙대)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소련에서 온 꾸즈네프와 김래호교수는 10월1일 오후7시 같은 장소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현대문학’ 및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도 가졌다.

잡지대학 강좌 수강생 모집

한국잡지협회가 주관하는 제14기 잡지대학강좌가 오는 10월14일부터 12월27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잡지회관에서 열린다.

수강대상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녀로, 수강신청마감은 오는 10월10일까지이다. 문의전화 735-9464.

직장인들 월평균독서량 고작 한두권

도서구입비는 월수입 1% 지출...소설류 즐겨 읽어

대한교육보험이 독서주간을 맞아 전국의 직장인 8백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월평균 한권에서 두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월수입의 1%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독서량에 대해 응답자의 68.3%가 1~2권, 28.3%가 3~4권이라고 응답, 전체의 96.6%가 1권 이상 독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구입비 지출에 대한 질문에는 51.6%의 응답자가 월수입의 1~2%를, 13.3%가 3~4

%를 지출한다고 응답해 직장인들의 독서열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즐겨 읽는 책의 종류는 44.4%가 소설을, 21.7%가 사회과학서, 12.8%가 시·수필, 8.7%가 업무관련 전문도서를 꼽았는데, 특히 여사원의 경우에는 60.7%가 소설류를 읽는다고 답변해 정서순화와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독서를 즐기는 반면에, 남사원들은 53.7%가 사회과학도서나 업무관련도서를 선호하고 있어 남녀의 독서목적이크게 다른 것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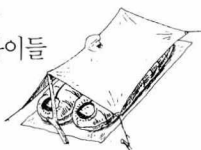
진선출판사 720-5990-1

신나게! 재미있게! 용감하게!

◆ 교육도감시리즈 제4권 「공작도감」도 곧 나옵니다.
• 2도 인쇄 / 각 권 값 4,800원 •

‘모험도감’은 자연의 길잡이입니다.

자연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어찌다 야외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만 할뿐. 자연의 벗 「모험도감」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배낭 꾸리는 법, 텐트 치는 법, 요리법, 야생 동·식물의 세계... 참교육의 한마당인 자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쳐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개구쟁이들의 친구 ‘놀이도감’

언제, 어디서, 누구나 「놀이도감」과 뛰노는 즐거운 하루. 화초놀이, 야외놀이, 자연에서 논다. 전승놀이, 만들어 논다 등으로 구성되어 창의력, 순발력, 응용력을 길러주는 재미있는 ‘놀이책’입니다. 아이들의 생명력은 무한히 뻗어나는 자유로운 힘 — 마음껏 달리고, 던지고, 구르고 미래의 꿈이 점점 커집니다.



재미있게 자연을 관찰한다

동식물의 모든 것 「자연도감」에는 알쏭달쏭 이상하고 진기한 ‘자연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먹보 너구리, 멧가수 종다리, 수질 측정기 수상 곤충 개미뿔에서 자라나는 개미버섯..... 싱그러운 흙내음, 푸르름이 있는 곳, 「자연」— 아이들의 꿈은 커 가고 자연 사랑의 마음도 배웁니다.



실천문학 '리얼리즘' 심포지움

실천문학사는 우리 사회의 리얼리즘 논쟁을 중간결산한다는 의도의 심포지움을 지난 27일 오후1시에 강남출판문화센터에서 가졌다.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현단계 리얼리즘 논의의 이론적 검토' (조만영) '시의 리얼리즘' (최두석)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백낙청·임규찬·윤영천·오성호씨 등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 심포지움은 한국사회의 리얼리즘 성격과 방법론을 규명하는 자리로서, 해석상의 차이를 보여준 신·구세대의 토론의 장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안장환씨, 박영준문학상 수상

제4회 晩牛 박영준문학상 본상 수상자에 소설가 안장환씨가 선정됐다.



안장환씨.

수장작은 장편 「배반의 그늘」이며, 우수상은 황광남씨가 받았다. 시상식은 10월4일 오후5시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렸다.

'도유통', 총정로에 새 사무실

도서유통계선협회의(회장 이호림)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2가 99의 13 건물에 새 사무실을 마

련했다.

그동안 한출협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던 도유통은, 서대문로터리 인근에 자리잡은 이 2층건물에 도서출판 거름과 함께 입주했으며, 이 건물에 있던 청년사는 강남구 포이동으로 이사했다. 도유통의 바뀐 전화번호는 313-3501.

일본출판정보지「북포스트」창간

일본 출판계의 신간서적 동향을 알려주는 격주간 정보지「북포스트」가 창간됐다.

이 잡지는 매달 첫째, 셋째주 금요일에 발간되며, 일본의 서적도매상들이 소매서점에 제공하는 신간 정보지의 내용과 일본의 일간신문, 출판전문지 등에 실린 내용을 번역해 신간 된다. 일본 도매상들이 발행 배포하는 정보지에 실린 책들이 대부분 출판 할달전의 것들이기 때문에 「북포스트」에 게재된 정보 역시 신속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영어권의 출판정보는 「북리뷰」나 「퍼블리셔스 위클리」를 통해 주로 공급돼 왔으나, 일본의 신간서적 동향을 국내 출판인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은 이 책이 처음으로, 일본 서적을 번역출판하는 출판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줄 것으로 보인다. 문의전화는 719-2390

청소년 교양도서 독후감 공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는 '제2회 청소년 교양도서 독후감'을 공모한다.

청소년들의 전인적 인격형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이 독후감 공모는, 국민학교부·중등부·고등부·대학 및 일반부로 나뉘어지는데, 공모대상도서

는 위원회가 선정한 도서목록(41권)을 참고해야 하며 응모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이다. 문의전화는 719-4897.

유럽지역 도서유통현장 연수회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선진국의 출판문화와 그 유통현장을 둘러보고 출판문화의 질적향상과 유통구조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제4회 해외 도서

유통현장 연수회'를 계획해 참가단을 모집한다.

독일·영국·이태리·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을 10월5일부터 18일까지(13박 14일) 돌아보며, 포일즈서점(런던)을 비롯해 유명서점과 출판사, 그리고 유통기구 등을 방문하게 될 이번 연수회 기간 중에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도 참관하게 된다.

문의전화는 716-5621~3.

도서발행량, 불황 불구 꾸준히 증가

올 상반기 출판통계...참고서 신장률 가장 두드러져



올 상반기 도서발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중수에서 5.7%, 부수에서 6.5%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형서점의 매장.

판매부진으로 인해 장기간 계속돼 온 출판계의 불황과는 반대로 올 상반기 도서발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간 발행중수에서 5.7%, 발행부수에서는 6.5%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최근 밝힌 상반기 출판통계에 따르면 신간 총발행부수는 1만1천5백

79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1만9백49종보다도 5.7%가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77종의 새로운 책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학습참고서가 2천2백82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학이 1천9백74종이, 사회과학 1천5백91종, 아동이 1천5백20종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간 총발행부수는 지난해보다 6.5%가 늘어난 8천64만6천9백6부로 종당 평균 6천9백64부가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의 평균 정가는 6천9백4원으로 작년 대비 13.6%가 인상된 폭이며, 면수는 4.8%가 늘어났다.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참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독일출판인서적상협회가 주최하는 제43회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 참가할 우리측 참가인원과 전시규모를 확정했다.

오는 10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전세계 8천5백여 출판사가 참여해 펼쳐질 이번 도서박람회에는 계몽사(8종 130책) 웅진출판(10종 341책) 국민서관(17종 261책) 고려원(328종 380책)이 전시대를 구성해 출판도서들을 진열할 계획인데, 삼성당의 대표 강명채씨 등 10명이 출협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하게 된다.

이달의 문화인물에 주시경

문화부는 10월의 문화인물로 한글연구의 선구자 한헌생 주시경선생(1876~1914)을 선정해 발표했다.

황해도 봉산에서 출생한 주시경선생은 조선어연구회를 창설하는 등 전생애를 통해 한글연구에 전념했으며, 「국어문전음학」 「조선어문법」 「말의 소리」 등의 저서를 남겼다.

문화부는 10월9일 한글날을 맞아 90년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됐던 세종대왕과 맥락을 같이하는 뜻에서 주시경선생을 선정하여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재조명하는 갖가지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련기사 12~13면)

여름새벽이 또 이사를 했습니다



사무실 구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여름새벽만이 겪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수 많은 출판사, 아니 대한민국 백성의 거의 절반이 해마다 치르는 일이겠지요. 혹시 디자인이나 편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름새벽은 이미 3년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및 잡지·사보·단행본의 편집대행에서 상당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새벽은 실무자들로 이루어진 출판디자인 전문집단입니다.

120-180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62-63 302호, 전화번호는 325-4963·4 팩시밀리는 325-4965입니다.

